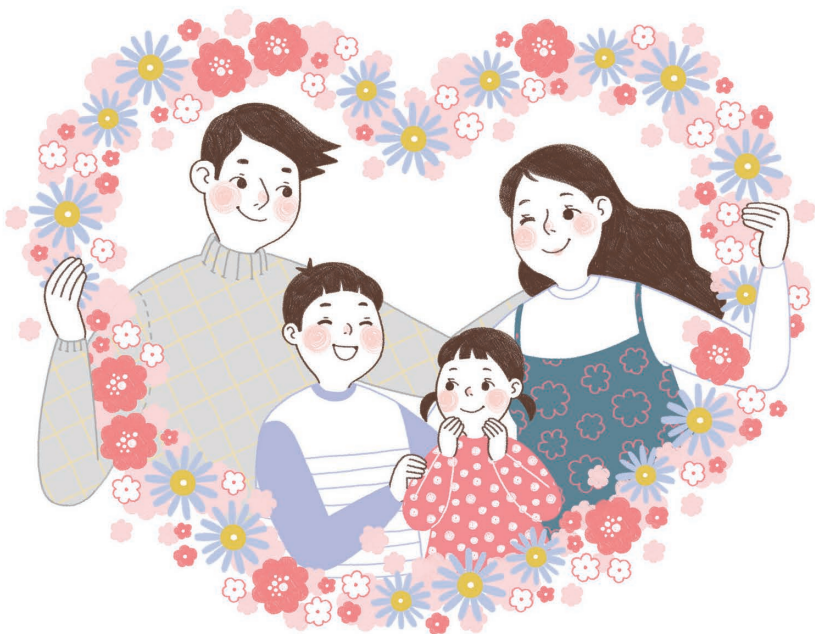


 행복가득, 감동울림 프로젝트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인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Contents

PART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떻게 달라요.	... 3
PART 2	어린이집 이용시간 알아볼까요?	... 4
PART 3	어린이집 프로그램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	... 5
3-1	어린이집 처음 적응하기	... 6
3-2	어린이집 적응을 돕는 부모의 매너	... 8
3-3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보내기	... 10
3-4	어린이집 규칙 지키기	... 12
3-5	바른 습관 심어주기	... 14
3-6	올바른 식습관 들이기	... 15
3-7	감염병 발생 시 어린이집 이용 안내	... 16
PART 4	어린이집 찾아볼까요?	... 19
PART 5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 25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렇게 달라요.

◆ 담당 행정기관이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만 3세~만 5세가 원칙이나 간혹 만 2세반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평일 07:30~19:30, 토요일 07:30~15:30을 원칙으로 하나 저녁 늦게 혹은 24시간,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보다 운영시간이 짧지만 방과후과정, 온종일 돌봄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교사의 자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유아교육과를 포함하여 아동학, 보육학, 사회복지학 등 보육 관련 학과를 나왔거나 보육교사양성과정을 마친 보육교사들이 근무합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과를(교직과목을 이수한) 졸업한 교사가 근무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들입니다.

◆ 보육·교육과정은 같습니다.

만3세~만5세의 교육과정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공통으로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세~만2세의 영아들을 위해서 국가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하여 발달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교육프로그램, 교육 경비, 영양 및 환경위생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hildinfo.go.kr>)

2 어린이집 이용시간 알아볼까요?

1. 2020년 3월1일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누어 구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07:30	16:00	19:30
구 분	기본보육		연장보육
보육시간	7:30~16:00(+1시간)		16:00~19:30
인력배치	담임교사		전담교사
비용지원	보육료		연장보육료

2. 이용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기본보육	연장보육
대상 및 신청	모든 아동 (만0세~5세)	만0~2세 종일반 자격 아동 중 연장보육신청 아동 • 이용신청: 양육자가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 자격 승인 • 자격확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
		만3~5세 별도 자격 기준 없이 연장보육 신청 아동 • 이용신청: 양육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재 등원 불가

※ 영유아의 안정적인 어린이집의 생활을 위하여 연장보육 신청 시 지속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

3.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구분	기본보육 7:30~16:00(+1시간)			연장보육 (16:00~19:30)		
교사 대 아동 비율	구분	교사	아동	구 분	교 사	아 동
	만0세	1명	3명	만0세	1명	3명
	만1세	1명	5명	만0~2세	1명	5(+2)명
	만2세	1명	7명	장애아 포함 시	1명	3명
	만3세	1명	15명	만3~5세	1명	15(+5)명
	만4세	1명	20명	※ ()은 탄력 보육 정원임		
	만5세	1명	20명			

4.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뉜 이유

- 연장보육 시 전담교사의 배치로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
- 교사는 수업준비 시간과 휴게시간으로 보육의 질 제고
- 부모는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보육서비스 이용

5. 문의: 129



3 어린이집 프로그램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

처음 맞이하는 단체 생활에, 아이들이 가질 불안감을 이해하고 어린이집 초기 적응생활을 도와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교실, 또래친구들, 교사 모두 낯선 환경이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신입원아 적응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적응프로그램에는 그 동안 아이를 주로 양육했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므로 사람, 시간에 대한 준비를 입소 전에 합니다.

◆ 적응기간 동안 양육자는

- ❶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이마다 기질이 다르므로 적응 기간 또한 다르게 진행됩니다.
- ❷ 처음 자유놀이시간의 짧은 방문(40~50분)으로 시작하여 오전 간식, 바깥놀이, 점심, 낮잠 등으로 점차 시간을 늘려갑니다. 양육자도 처음에는 교실에 함께 있다가 점차 교실 밖으로, 어린이집 밖으로 이동해 갑니다.
- ❸ 교사가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교사도 아이에게는 낯선 인적 환경에 불과하므로 아이와 친밀해지기까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접촉을 시도할 것입니다.
- ❹ 잘 논다고 시간을 임의대로 늘리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장난감에 호기심으로 그릴 수 있으나 이곳이 양육자와 떨어지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아이는 퇴행현상을 보이기도 하여 더 힘들게 됩니다.
- ❺ 잘 논다고 몰래 사라지거나, 운다고 해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는 양육자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올거야.”라고 분명히 알려주면 헤어질 때는 울었더라도 양육자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가면 언제 보호자가 데리러 올지 몰라 하루 종일 불안해합니다.



3-1. 어린이집 처음 적응하기

가. 적응기간이 필요해요.

재원아들도 해가 바뀌면 선생님과 또래 친구와 교실이 바뀝니다. 따라서 같은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입니다.

재원아들도 신입원아만큼 적응이 필요하므로 학기 초에는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듯이 보육시간을 좀 짧게 한다거나 양육자가 더 관심을 갖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 알림장은 서로가 소통하는 장이에요.

어린이집에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양육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림장, 일일수첩, 일일보고서 등입니다.

교사는 아이의 식사, 배변, 놀이 등을 상세하게 쓰는데 정작 아무런 답이 없으면 교사는 기운이 빠지지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투약 의뢰 외에도 양육자가 쓰는 모든 이야기들이 교사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컨디션을 알 수도 있고, 아이가 경험한 것들도 알게 됩니다. 교사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와 대화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Tip. 투약의뢰서와 약 보내는 방법



투약의뢰서란?

아이의 증상에 따라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투약하기 위해 양육자가 투약의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약의뢰서는 어린이집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주로 약의 종류(증상), 보관방법(냉장/실온), 투약 용량, 투약시간, 투약 횟수 등의 내용이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 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투약의뢰서가 없으면 약을 투약하지 않으며, 투약의뢰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교사는 약을 투약하므로 누락된 내용 없이 기재를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투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생활로 여러 명의 아이들의 약을 투약할 때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에 약을 보낼 때는 꼭! 1회분의 양만 담아주시고, 약병이 섞이지 않게 아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다. 교사와 늘 소통하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블록을 높이 쌓은 것을 보고 교사는 아이에게 “산(山)만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엄마 “산만(散漫)하다가 뭐야? 선생님이 나보고 산만하다고 했어.” 실제로 있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도덕(양심) 발달단계에 “거짓말”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말을 배우는 서너 살이 되면 자신의 상상까지 섞어서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말 또는 남의 관심을 끄는 말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있지 않았던 일들을 얘기할 수도 있으므로 선생님과 꼭 이야기 해 보세요.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사에게 문의 해 주세요.



3-2 어린이집 적응을 돕는 부모의 매너

가. 결석을 할 때는 먼저 어린이집으로 연락해주세요.

교사의 주된 업무는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교사는 아이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실을 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가 먼저 아이의 결석 여부를 어린이집으로 연락한다면 교사는 보육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교사와의 직접 통화를 원하거나 등·하원 시에 긴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보육 받아야 할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용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Tip. 연락 없이 2일 동안 결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결석한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호자와 연락을 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합니다.
- ◆ 결석 당일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게 되고, 유선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실시합니다. 2일 동안 유선으로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보육교직원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이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합니다. 가정방문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가 되며, 사후관리(면담, 교육 등)가 이루어집니다.

나. 교사에게도 교육과 휴가가 있어요.

보육교사는 직무를 위해 안전교육이나 아동학대예방교육과 같은 의무교육도 받아야 하고, 승급이나 자격을 위한 보수교육도 법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충전을 통해 교사도 성장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위해 대체교사를 확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 아이들 앞에서는 선생님을 존중 해 주세요.

교사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듣는 데서 교사를 비난하거나 나무라는 말을 삼가해 주세요. 교사에 대한 양육자의 말과 행동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어린이집에서 종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선생님을 신뢰하는데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교사에게는 배움도 일어나기 힘들므로 결국은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일입니다.

Tip. 산업안전/ 감정노동자보호법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감정노동이란?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만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고객응대업무를 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공단[2011],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예방지침」

◆ 감정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직업 30선

순위	직업	순위	직업
1	항공기 객실 승무원	16	물리 및 작업 치료사
2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17	비서
3	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기 판매원	18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강사
4	장례상담원 및 장례지도사	19	치과의사
5	아나운서 및 리포터	20	사회복지사
6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	21	여행 및 관광 통역 안내원
7	검표원	22	경찰관
8	마술사	23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9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	24	유치원교사
10	고객 상담원 콜센터 상담원	25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11	미용사	26	경호원
12	텔레마케터	27	보험 영업원
13	출납창구사무원	28	보육교사
14	응급구조사	29	약사 및 한약사
15	간호사[조산사포함]	30	여행상품 개발자

*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KRIVET Issue Brief, 26호.

3-3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보내기



가. 월령에 맞는 예방접종은 다 했나요?

어린이집은 단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가지고 태어난 면역력은 엄마 젖에 의해 유지되다가 점차 감소합니다.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연령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입소 전 월령에 맞는 예방접종을 마쳤는지 점검합니다. 면역력이 생기려면 적어도 한 달이 소요되므로 3월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신다면 1월 중에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마쳐셨어야 합니다. 해마다 맞춰야 하는 일본 뇌염이나 독감 예방접종도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나. 낮잠도 중요한 하루 일과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세계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아이들의 생체 리듬은 오후에 접어들면서 점점 하락하여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다투는 등 어린이집의 오후 일과를 재미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뇌의 휴식은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바꾸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만 3세까지는 꼭 낮잠을 재우도록 국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면 조용한 휴식 시간이라도 갖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 휴일에는 쉬어야 해요.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듯 일주일을 긴장 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주말에 아이를 놀이공원 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월요일이 피곤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와 놀아준다는 것은 편안한 가정에서 아이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의 놀이를 지켜만 봐 주셔도, 아이들은 행복해 합니다. 건강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하여 주말에는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라.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아플 수 있어요.

집에서는 양육자와 일 대 일로 있는 경우가 많으나 어린이집에서는 또래와 같이 생활합니다. 따라서 옆에 아픈 친구가 있으면 병이 옮을 수도 있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수족구나 수두는 어린이집에서 매우 흔한 감염병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감염병에 걸리면 절대 어린이집에 보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하여 지원인력이나 아이돌보미 제도 같은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위생도 중요하지만 집에서도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이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Tip. 아이돌보미 이용방법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 안내

야간, 공휴일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시간 제한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구분	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연 720시간 내 지원
정부미지원 가정(전업주부 등) 및 정부지원 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	전액 본인 부담

◆ 이용문의

기관명	전화번호
인천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933-8005
인천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547-1015
인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466-8177
인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7438-4903
인천 미추홀구 가족센터	032-508-0121
인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569-1548
인천 연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851-2733
인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763-9355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home.go>

3-4 어린이집 규칙 지키기



가. 등·하원 시간을 지켜주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아이가 어린이집 생활을 하는데 안정감을 줍니다. 따라서 등·하원 시간을 일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전 자유놀이 시간은 영유아의 사회성, 자율성, 자긍감, 협동심, 창의력, 인지력 등을 발달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흥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놀이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 중간에 놀이에 참여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집에서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어린이집에 온다면 정해져 있는 식사, 낮잠 시간도 힘들겠죠?

나. 차량 시간을 지켜주세요.

등·하원차량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나 하나만 늦어도 전체 시간이 어긋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시간, 장소, 인계자를 잘 지켜서 운전자가 서둘러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세요. 또한 하원 하는 장소도 일정한 곳이어야 교사의 업무량이 줄어듭니다.

다. 다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신체조절력이 미흡하여 혼자 넘어지거나 다치기 쉽습니다.

친구에 대한 관심을 깨우는 것이나 때리는 것, 놀던 장난감을 빼기거나 하면 손톱으로 할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들께서는 아이의 손톱을 짧게, 모가 나지 않게 깎아주는 것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과정이 친구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선생님을 믿고 맡겨주세요. 또한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보는 돌봄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라. CCTV는 이럴 때만 볼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원한다 하여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때만 가능하며 법에 따라 열람시기, 절차, 방법 등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CCTV에는 목소리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어린이집 CCTV 열람절차

열람요청

- ❶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열람을 요청
- ❷ 작성해야 할 서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6호서식)
- ❸ 작성사항 : 청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항, 영상기록기간, 설치장소, 영상열람 목적 및 사유



10일 이내

열람 결정 통지

- ❶ 어린이집은 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 보육의 제반사항을 고려 후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 ❷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을 서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별지 제7호서식)
- ❸ 확인사항 :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열람이 거부될 수 있음), 열람형태, 열람일시 및 장소



7일 이내

열람

- ❶ 어린이집 원장과 보호자는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형태에 따라 CCTV영상을 열람
- ❷ 열람을 위한 준비물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정당한 열람권 확인용)
- ❸ 확인사항 : 열람자는 비밀유지에 대한 서면 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음

3-5 어린이집 바른 습관 심어주기

가. 업어서 재우는 습관은 “이제 그만” 해 주세요.

낮잠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하루 일과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만0세 영아는 1:3, 만1세는 1:5로 반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집에서 업어서 재운 아이의 수면 습관을 존중하고 싶어도 어린이집에서는 역부족입니다.

교사가 지켜줄 수 없는 수면습관은 집에서부터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소 초기 양육자와 헤어지는 것도 힘든데 아이들이 잠자는 습관도 달라 적응을 더 어렵게 합니다.

또한 우유병을 빨면서 잠드는 것도 우유의 유당이 충치를 유발하므로 꼭 고쳐져야 할 습관입니다.

나.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오시면 신발을 벗고 교실로 들어와 걸옷을 벗는 등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의 일부로 바쁘시더라도 아이가 연령에 맞게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신고 벗을 수 있는 짝짝이 신발, 입고 벗기 쉬운 고무줄 바지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양육자들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단추가 많은 옷, 멜빵바지, 끈 있는 운동화는 아이에게 실패의 경험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3-6 올바른 식습관 들이기

가. 여러 식재료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유식을 끝내고 일반식을 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의 식사는 집보다 그 재료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입소 후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앓기 쉬운 병이 장염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표를 보시고 집에서 경험하지 못한 식재료가 있다면 미리 맛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알레르기를 보이는 식품이 있다면 반드시 어린이집에 알려야 합니다.

 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http://ccfsm.foodnara.go.kr/yeonsu>

나.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해주세요(급·간식 지도)

급·간식 지도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양육자는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면 잘 먹으니까 다 먹여주세요.”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이가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마세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마다 다르게 일관성 없이 지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은 먹기 싫어하거나 처음 맛보는 음식에 대해 한 두 번 정도 권유하고 경험하도록 합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먹기 싫은 음식이 있으니까요. 다만 아직 식습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이므로 새로운 음식에 대한 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3-7. 감염병 발생 시 어린이집 이용 안내

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별도 해제 시)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집 포함)	<정부 방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휴관·휴원권고 • 긴급돌봄 등 유지
	<인천시 조정방침>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 단,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상기 내용은 정부의 방역지침 조정 및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안전한 보육환경을 함께 만들어요.

1) 등원할 때(통학차량 이용 아동은 탑승 전) 37.5°C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 또는 귀가조치 합니다.

■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장소 여행력이 있는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2주간 등원 중단!

2) 등원 후, 매일 2회 건강상태(발열상태)를 체크합니다.

유증상자 발생 시

- 1) 보육교직원은 귀가 조치! 등원아동은 보호자에게 연락조치!
- 2) 등원아동 격리(보육교직원과 동석)
- 3)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의료기관 이송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동행 이송 가능)



3) 어린이집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요.

-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출입자 명단을 관리합니다.
- 보육교직원은 아동&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집단활동 자제, 개별놀이 중심 운영하여 아동 간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3~5세 유아는 노래, 율동 등 집단활동이나 차량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합니다.
24개월 미만 영아는 마스크 미착용을 권장합니다.

■ 급·간식 시 일정 거리 유지하고 일렬 식사 권장합니다.

4) 개인 청결 및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동안 꼼꼼하게 씻어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요.
-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자주 청소, 소독해요.
(여름철 냉방기 사용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필수로 환기, 교재 교구 매일 소독 등)
- 3밀(밀폐, 밀집, 밀접)을 멀리해요.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아요.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요.



다. 긴급보육이 필요해요.

- 1) 긴급보육이란 맞벌이 부모, 한부모 등 여러 조건으로 인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가정에 한해 보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긴급보육 이용은 별도의 자격과 신청양식은 없으며, 보호자가 가정돌봄의 어려움으로 등원을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 3)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을 위한 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정상적으로 급간식을 제공합니다.
- 4) 가정양육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부모 보육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5) 긴급보육시에도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며,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유증상 교직원과 아동은 업무배제 또는 등원중단 등의 방역조치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 6) 긴급보육 미실시, 급간식 미제공 등 불편사항은 시도, 시군구 보육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가능합니다.
- 7) 기타 안내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긴급보육은 반드시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꼭 필요한 날로 제한하여 주시고, 보육시간도 꼭 필요한 시간으로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경우에는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

4 어린이집을 찾아볼까요?

내가 원하는 어린이집 찾기!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info/main>)

1) 유형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단체·개인으로 분류한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운영 형태

2) 보육서비스

- ** [일반] 만0~6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 [장애아전문]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 [장애아통합] 영유아와 장애영유아가 함께 보육서비스를 받는 어린이집
- ** [영아전담] 만3세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 [방과후 통합] 영유아와 방과후 초등학생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 [아간연장]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
- ** [24시간] 주간(07:30~19:30)과 야간(19:30~익일 07:30) 모두 운영
- ** [시간제보육] 시간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5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 미추홀구가 설치하고 인천KCEM 보육교사교육원이 위탁 운영합니다.

비영리 육아지원 기관으로 국가 및 미추홀구의 보육·육아정책의 실현을 돕고, 포괄적 육아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믿음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0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입니다. (법정공휴일 및 주말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대상 : 미추홀구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미추홀구 관내 보육교직원

이용방법 : 홈페이지(www.nccic.or.kr)를 통해 희망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신청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도화점)

주 소 | 미추홀구 숙골로 112번길 22

전화번호 | 센터) 032-884-0756

도담) 032-888-0252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 2번 출구(도보 19분)

1호선 도화역 2번 출구(도보 17분)

버 스

4, 7번(도화 서희스타힐스 하차)

81번(도화 e편한세상 아파트 6단지 하차)

510(인천 비즈니스고등학교 하차)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스타그램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친구



 인천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천시 미추홀구 숙골로 112번길 22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 T. 032)884-0756 F. 032)888-0757